

일본, 오염수 방류 시작... 광주·전남 등 전국서 규탄대회

한덕수 총리 "국민 건강 최우선" ... 민주당, 장외투쟁에 총력 전남도, '수산물 보호 특별법' 마련 등 정부차원 대책 촉구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2·4·6면> 이날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으며, 야권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에 피해 지원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부터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했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지만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남는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당 1500벵크렐(Bq)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이미 지난 22일 오후 오염수 약 1t을 희석 설비로 보낸 뒤 바닷물과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았다. 도쿄전력은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인 1당 1500Bq을 훨씬 밑돌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히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을 비롯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련단의

정서에 따르면 분쟁 해소 절차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IM(국제해사기구)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 국회 경내에서 촛불집회를 벌인 데 이어 이날 방류가 시작된 시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 3당, 시민단체와 함께 투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련단의정서에 따르면 분쟁 해소 절차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국제해사기구(IMO)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도 총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 나선다. 26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의당 등 야당,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연다. 또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일본 야당 및 어민과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79명은 이날 광주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핵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억압하고 호도한 권력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련련협약·의정서' 및 '유엔(UN) 해양법협약'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규탄하고, 지역 수산물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이 24일 방류 시작과 동시에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가 모두 경찰에 체포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었다. 이날 낮 12시께 광주충장우체국 앞에서는 광주·전남지역 250개 단체의 연합체인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 주최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광주·전남공동행동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라면서 "일본의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4일 오후 1시 3분경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1000여개 대형 탱크에는 오염수 134만여t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항의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 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간 일본을 향해 오염수 방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었다.

왕원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2023년 8

월 24일을 언급한 뒤 "한 번 앞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며 "이날이 해양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2일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며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 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직후에는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인민지상'(인민을 최고의 가치로 삼음)을 견지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비 그치고...다시, 무더위 광주·전남 폭염특보 확대

주말동안 가끔 비가 내리다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며,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서부 5~30mm, 전남 동부는 최대 100mm까지 전망했다. 이어 오후부터 27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5일 광주·전남 오후 낮 최고기온은 30~33도를 보이고,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에 분포할 것으로 예측돼 주말과 휴일에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또 일부 도심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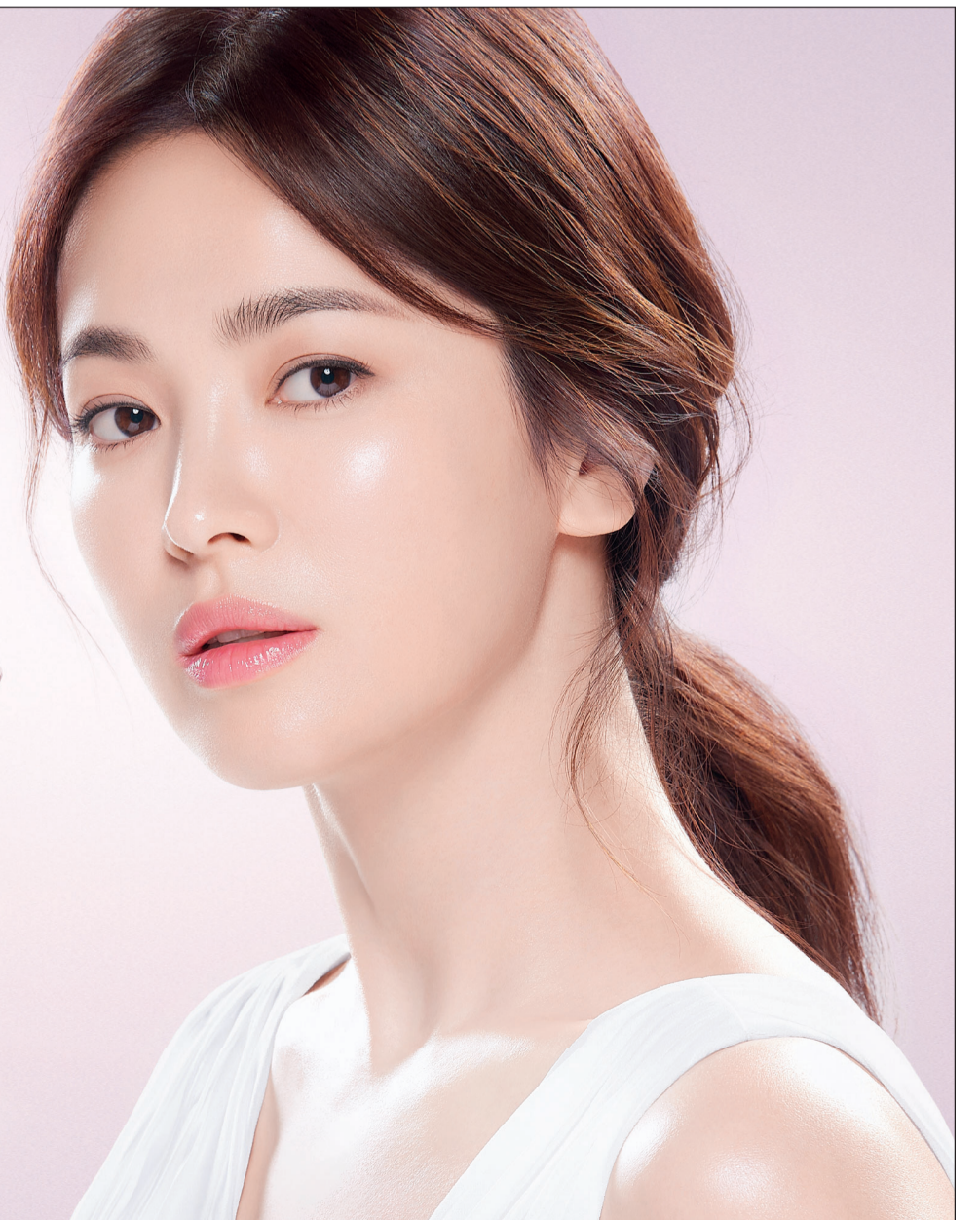
기준금리 3.5% ... 5차례 연속 동결 ▶8면

복스 - '컬러 인사이드' '다윈의 식물들' ▶14·15면

손흥민, 시즌 마수걸이 골 넣을까 ▶18면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